연중 제 32주일(2017년 11월 1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서 왔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주아주 먼 옛날에,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의 인류가 된 거란다.”

며칠 후에,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아빠,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주아주 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진화하면서, 인류가 생겨난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먼 옛날 조상은 원숭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어린 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헷갈립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답이 다르니까 혼동스럽죠. 그래서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이상해. 엄마는 사람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아빠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얘야, 그건 간단하단다. 엄마는 엄마 쪽 가족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가족 이야기를 한 거야.”

하하하… 예,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디서 왔나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위령 성월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장례 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미국 성당은 노인분들이 많아서 장례 미사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일 년에 평균 40번 정도 장례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 년 중, 이 위령 성월에 장례미사가 가장 많습니다.

장례미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많은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한 젊은 아가씨의 장례 미사도 한 적이 있었구요, 젊은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아주 슬픈 장례 미사가 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장례 미사, 어린아이의 장례미사 등등 사연 많은 여러 장례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런 경우, 유가족들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이라든가, Nursing Home 등을 방문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앞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하고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주로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죽은 영혼을 저세상으로 잘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대로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련과 아쉬움으로 죽은 영혼이 떠나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은 사람은 저세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잘 가시라고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도 붙들려서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과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한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5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들 걱정, 홀로 남겨질 남편 걱정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혼자 떠나느냐고 말씀하세요. 남은 가족들 놔두고 어떻게 혼자 떠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잘 떠나시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아주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풍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다 시들고 떨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죽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프다가 결국 죽고,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히 떠나시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편안하게 떠나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어머니를 잘 떠나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서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대로 열심히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잘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이 잘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이지요. 이것이 ‘위령’이고 ‘제사’입니다. 위령 성월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의 영혼이 저승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삶과 영원한 행복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 허무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삶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살다가, 언젠가 돌려 드려야 할 때가 되면, 기쁘게 돌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열 명의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인 잔치는 하늘 나라에 마련된 천상 구원의 잔치를 암시합니다.

잘 준비한 처녀들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잘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의 비극은 등잔의 불을 밝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쁜 등잔을 들고, 이쁘게 차려입었지만, 온통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꾸미고 보기 좋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나 영혼이 텅 빈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텅 빈 채로 갔다가, 잔치에서 쫓겨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서, 다 함께 그 천상의 구원 잔치에 같이 가십시다!